

100회 맞은 SBS '미운 우리 새끼'

"집밥같은 정감이 사랑받는 비결이죠"

시청률 20% 꾸준한 인기
"내 아들 이야기 같아"
솔직·유쾌한 모습에 공감

"보통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인데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예쁨을 받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죠."

SBS TV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이하 미우새)가 지난 12일 100회를 맞았다. '미우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시청률 20%를 넘나든다.

최근 '미우새' 광승영 PD는 프로그램 인기 비결이 "집밥 같은 매력"이라고 손꼽았다.

"원래 가장 몰리지 않는 반찬은 값싸고 고급스러운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 손맛이 담긴 소박한 집밥이죠. '미우새'도 집밥처럼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여줘요. 그 일상이 늦바람 클러버이거나 막대한 채무 때문에 궁핍한 모습이어도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호응이 큰 데는 무엇보다 어머니를 역할이 크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입담이 대단하시죠. 베데랑 MC인 신동엽 씨도 어머니를 센스에 깜짝 놀랄 정도죠. 그래서 시청자들도 어머니들이 '폭발' 할 때는 한마음으로 화내주시는 것 같아요."

"다 큰 아들들을 엄마가 지켜보는 '다시 쓰는 육아일기'지만 다양한 세대가 '미우새'를 시청한다.

광 PD는 "부모 세대는 '우리 아들만 그러는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젊은 세대는 레시피 등 유용한 팁을 많이 얻는다"며 "초등학생들이 길에서 길건 모를 보면 '드른 아저씨'라며 반가워한다. 가장 많은 히트곡 가수왕이 그렇게 불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웃었다.

그는 출연자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김건모 씨는 선 살이 됐지만 10대 소년처럼 '무슨 일을 꾸며볼까?' 하는 호기심과 에너지가 있죠. 고기 굽는 테이블을 갖고 싶다는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에 직접 배달에 나선 것도 김건모씨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박수홍 씨가 야외 클럽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은 좋게 그 자체였어요. 이상민 씨는 재권



자와 만남을 통해 시청자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최근에는 김종국이 합류해 기존 '미우새'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김종국은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고, 빛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아들이죠. 김종국 씨 출연 이후 어머니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완벽할 것 같은 아들도 '미우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던 김건모 씨 어머니가 김종국 씨를 보고 걷기 운동을 시작할 정도로 '미우새' 건강 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죠."

관찰 예능 대표 주자로서 광 PD는 최근 관찰 예

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 대한 고민도 꺼냈다.

그는 "얼마나 새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양세형·양세찬 형제와 승리가 출연한 것처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우새'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 PD는 "미우새'가 예능계 '전원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어머니들께서는 100세가 될 때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김건모 씨는 팔순잔치를 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웃음)"

/연합뉴스

"스타교사가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엠넷 '방문교사' 내일 첫 방영



돈스파이크, 버논, 루다, 마이크로닷 (왼쪽부터)▶

인기 연예인이 일반 학생의 과외 선생님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엠넷은 새 교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방문교사'를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교사'는 스타 교사가 직접 공부를 가르쳐 주고 인생 선배로서 멘토가 되어주는 내용이다.

스타 교사는 학생의 동기 부여와 성적 향상을 위해 충실한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만약 학생의 성적 등이 부모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 수업 후 하고당할 수도 있다.

일반인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으로는 세븐틴의 버논, 돈스파이크, 마이크로닷, 우주소녀의 루다, 펜타곤의 홍석이 출연한다.

버논은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준비했으며 돈스파이크는 강남 8학군, 명문대 출신으로 전 과목 수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오슬랜드 공과대학교 출신 마이크로닷은 엘리트 공대생 면모를 보여

줄 예정이다.

홍석은 중국 유학파 출신으로 중국어 수업에 나서고 루다는 열심히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적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버논은 "중2 때 지체하고 홈스쿨링을 했다. 홈스쿨링을 통해 부모에게 받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에 수업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도 "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맡았는데, 첫날 준비해간 것들이 학생 수준보다 낮았다"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마이크로닷은 "처음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됐지만, 막상 시작하니 재밌었다"며 "아이들과 형제 같은 사이가 돼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MC는 김성주, 박명수, 래퍼 산이가 맡는다.

오는 23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DJ DOC' 이하늘, 17 연하와 10월 결혼

"예식 조용히 치를 것"

그들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47)이 결혼한다.

이하늘 측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하늘이 오는 10월 10일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고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신부는 이하늘보다 17세 연하로, 두 사람은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늘은 1994년 DJ DOC 1집 '슈퍼맨의 비에'로 데뷔해 '머피의 법칙', '미녀와 야수', '여름 이야기', 'DOC와 춤을', '나 이런 사람이'



등 히트곡을 냈다. 최근에는 SBS TV 예능 '블타는 청춘'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50 2018 메이저리그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12	00 KBS 뉴스 12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전국노래자랑(재)	20 끝까지 사랑 (재)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 뉴스특보	00 SBS 뉴스특보 남북 아산가족 상봉
3	00 여기는 자카르타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2018 아시안게임	
4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2018 아시안게임
5	30 KBS 뉴스 5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25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 7 20 여기는 자카르타	50 끝까지 사랑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8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9	00 KBS 뉴스9			
10	00 여기는 자카르타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10 MBC 뉴스데스크	1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0 러블리 호러러블리	00 라디오스타 1~2부	20 2018 아시안게임
12	30 특집 다시 보는 북한문화유산	10 세상의 모든 다큐	3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0 나이트라인 4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안관광지 황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어묵달걀과 콩나물냉국>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저 푸른 초원 위에 뽕굴 3부 심이 있는 풍경 엘스 타사르하이>	12:00 EBS 정오뉴스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EIDF 2018 실�크로드의 아이들 <해변 위의 인생>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2:35 EIDF 2018 <울모스트 데어>	19:50 초이슈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00 EIDF 2018 <어 굿 맨>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구대 X	15:30 EIDF 2018 <영화화를 졸업한 언니들과 나>	<멋진 신세계 밀레리아시 3부 저 바다에 누워 쉼프르나>
08:45 칼랄라 뿌우	15:55 EIDF 2018 <레노와 앤젤피쉬>	21:30 한국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들리나오, 여름 소리 3부 묘향암, 자연의 소리를 듣다>
09:30 원더볼스	16:30 칼랄라 뿌우(재)	21:50 EIDF 2018 <내 어머니의 편지>
09:40 우리가족 거리 출하기 - 부모성적표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3:20 EIDF 2018 <스트롱거 먼 블랙>
		24:40 EIDF 2018 <황태자 디백>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해소 되지만 부분적인 결집은 여전히 있다. 48년생 다급한 상황에 놓인다. 60년생 약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72년생 대범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요구된다. 84년생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17	午	42년생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좋다. 54년생 조처해야만 훗날의 악재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 66년생 숨은 뜻을 이해해야만 풀어 나갈 수 있다. 78년생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다. 90년생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66, 80
丑	37년생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49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자. 61년생 본능적이란 관해 보지 마라! 이성적 판단에 따라라. 73년생 성공으로 가게 되는 귀중한 계기를 마련한다. 85년생 습관화 되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94, 09	未	43년생 순수한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55년생 숙단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79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91년생 이타적 조처가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이리라. 행운의 숫자 : 78, 71
寅	38년생 순공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50년생 자신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62년생 묵묵히 진행하고 있으면 된다. 74년생 정제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므로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86년생 남을 의심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18, 72	申	44년생 의외의 인물과의 만남이나 진귀한 기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56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68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제이다. 80년생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92년생 내실을 기하자. 행운의 숫자 : 60, 05
卯	39년생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1년생 현상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63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후고고를 하는 셈이다. 75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번수를 안고 있다. 87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89	酉	45년생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하는 편이 낫다. 57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치려면 뜻을 이루리라. 69년생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라. 81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93년생 전체일우의 기회이리라. 행운의 숫자 : 76, 23
辰	40년생 체면 따지다 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52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76년생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88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84	戌	34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국이든. 46년생 손조로울 것이니라. 58년생 범을 잡으려거든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70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밖으로 내 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4, 52
巳	41년생 망설임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53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65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77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승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89년생 준비해 두라. 행운의 숫자 : 38, 43	亥	35년생 조금만 더 애쓰면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리라. 47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59년생 신념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보람이 있다. 71년생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83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95, 7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